근대를 우회하는 '창백한 얼굴'들*

- 채만식의 「창백한 얼골들」을 중심으로 -

노상래**

〈차 례〉

1. 서론
2. '허기는 해야 할텐데' 독서를 하지 못하는 심사
3. '어데로 갈까'와 카프사건의 상관성
4. '(이 놈의 세상) 어떻게 될 거야'와 전복 가능성
5. '말세야'라는 말 속에 담긴 세상의 품격
6.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채만식의 소설 「창백한 얼굴」에 드러난 근대성에 대해 살펴보려 기획되었다. 이 소설은 단편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분장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각 분장마다 주제를 명확히 드러내는 중요한 구절이 등장한다. '허기는 해야 할 턴데' '어데로 갈까' '어떻게 될 거야(이놈의 세상)' '말세야' 등의 문장이 그것이다. 이 문장에는 「창백한 얼골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시대감각 혹

* 이 논문은 2016년도 영남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216A380013)으로 이루어진 것임.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은 작가 의식이 스며있다. 이런 의미 구성체는 스토리 속에 등장하는 사건·공간 혹은 인물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그 의미를 확대해 간다.

본고는 이런 사실에 유의하여 이 소설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려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폈다. 특히 담배 해태, 카프사건, 카페, 모던걸이나 모던보이, 전매국 여직공, 한강의 모터보트 등을 소재로 한 에피소드를 통해 일제가 이식한 근대의 맨 얼굴을 고발하고 있다.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근대 조선 혹은 조선인의 방향상실, 일제에 대한 전복 가능성, 이식된 근대에 대한 비판 의식 같은 그림자가 서늘하게 스며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창백한 얼굴, 카프, 모던걸, 모던보이, 전복, 카페, 전매국

1. 서론

1930년대는 조선의 근대화가 재촉되던 시기였다. 식민지 시기 조선의 GDP 추계 결과에 따르면 1911~1940년의 총생산 증가율은 연 3.7%이고, 1인당 생산이 매년 2.37%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1] 이런 성장에 가세하여 1인당 실질소비지출도 가속화되는데, 1912~20년에 19.2%, 1920~30년에 18.4%, 1930~39년에 19.1% 증가하였다.[2] 자본의 확장은 소비의 확장을 추동하였다. 거기에 편승하여 소비욕구도 부풀어 올랐다.

특히 채만식의 「창백한 얼골들」[3]이 발표되던 1931년을 위시한

1) 허수열, 「식민지기 조선인 1인당 소득과 소비에 관한 논의의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50호, 2015. 12. 85면.
2) 김낙년 편, 『한국의 경제 성장 1910-1945』, 서울대출판부, 2006, 203면.
3) 채만식, 「창백한 얼골들」, 『혜성』, 1931. 10.

식민지기의 외형은 기형적인 형태로나마 발전되어 가던 때였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 이식된 근대는 왜곡되거나 변주된 형태로 식민지 수도를 채색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식되는 근대를 살아가던 당대 조선인들의 내면은 어떠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식민지 근대의 화려한 외형과 달리 그 시공간을 살아가고 있던 일상인의 내면이 일치하고 있지 않았다면 식민지 근대의 진면목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채만식이 「창백한 얼골들」을 발표할 즈음의 창작관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채만식이 이 소설을 발표할 즈음에 그는 분명히 '조선의 프로문학'을 제대로 창작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 "조선의 프로 작품은 누가 읽느냐"고 반문하면서도 "나는 앞으로 잘 쓰려는 생각을 가지고 힘을 들이는 중"[5]이라고 했다. 당시 프로문학을 창작

---

4) 경성의 산업별 회사 수와 자본금 규모를 이전과 비교하면 수치상으로는 그리 보일 수 있다.

	1920		1930	
	수	자본금	수	자본금
농림업	9	55,200	24	73,100
상업	57	137,600	261	185,400
공업	18	11,000	185	156,100
광업	4	2,200	12	17,000
수산업	4	6,300	2	6,100
운수업	5	18,100	35	78,300
금융업	10	96,300	45	379,100
기타	14	302,200	126	85,100
계	121	628,900	690	980,200

박형용, 「일제시대 서울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6, 박선희, 「경성 상업공간의 식민지 근대성 : 상업회사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41권 제3호, 2006, 306면. 이 인용은 필자가 재인용 편집한 것임.

5) 채만식, 「문단소어」, 『중앙일보』, 1931. 11. 30, 『채만식전집 10』, 창작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카프 1차 검거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기 때문에 프로문학을 창작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만식은 잘 쓰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가 세상에 내놓은 작품은 극소량이었지만 "이놈이면 그래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쓴 것은 "거의 전부가 '삭제'의 시뻘건 도장으로 벼락을"[6] 맞아버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채만식은 창작의 담금질을 옥죄었고, 그 결과물이 「창백한 얼골들」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창백한 얼골들」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창백한 얼골들」은 '어젯밤 살롱 아리랑의 광경'이 주마등처럼 흘러가고 있는 아침에 'S'가 'K'를 방문하면서 서사는 시작된다. 이 소설은 크게 네 개의 분절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분절의 스토리를 탐침하면 소설 전체를 관류하면서 소설의 의미를 선명하게 부각시켜줄 각 분절별 묘사가 눈에 들어온다. 특히 명치정→진고개→대판옥서점→아까다마→한강→정자옥→진고개→메이지세이가로 이어지는 근대의 주유에서 산책자가 포착한 근대는 일본판 잡지, 나마비루, 전매국 처녀, 모터보트, 모·보와 모·걸, 아이스커피 등이다. K와 S라는 산책자의 시선에 포착된 이런 구성체는 당대의 의미구성소이기도 하다. 이들 구성체들은 '허기는 해야 할 턴데' '어데로 갈까' '어떻게 될 거야(이놈의 세상)' '말세야' 등의 문장으로 그 의미가 압축된다. 이런 압축은 스토리 속에 등장하는 사건, 공간 혹은 인물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그 의미를 확대해 간다.

그런데 류경동은 「창백한 얼골들」에는 '자본주의적 교환 구조에 매끄럽게 진입하지 못한 지식인의 일상과 내면적 갈등을' 그려낸

비평사, 1989, 28면.

6) 위의 글, 28면.

다고 하면서 "K와 S의 한탄은 현실에 대한 분석적 비판이 아니라 불가해한 세상에 대한 무력감의 자조적인 토로에 불과하다"[7]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논문은 류경동의 지적을 참고하면서 그 진위를 따져보고, 나아가서 앞서 지적한 구성체가 갖는 당대적 의미를 헤아려보려 한다. 그럼으로써 1931년 현재 채만식이 작품 속에 드러내고자 한 근대의식 혹은 식민지에 대한 현실감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허기는 해야 할텐데' 독서를 하지 못하는 심사

'재터리에서 담배토막'을 집어 피우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토막난 '담배'처럼 불완전하고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는 'K'와 'S'의 하루 일상을 기록한 소설이다. '일요일' 아침이지만 사실 'K'에게는 일요일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변변한 직업이 없는 그에게는 주중이나 일요일이나 매 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어제 밤 사롱 아리랑'의 모습이 '술 취한 사람의 발길'같이 돌아가는 머리 속에 침입하는 울림은 일요일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이다. 일찍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는 K는 S의 방문에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S는 K의 해태갑에서 '해태(카이다)'를 꺼내 피워 문다. '사롱'을 다니지만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어 근대를 '부라부라(ぶらぶら)'하고 싶은 욕망 하나쯤 실현하기에도 쉽지 않음을 K의 해태가 상징적으로 알려준다. 해태는 K의 경제적 수준을 암시하는 징표인데, 다음 인용은 좋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

7) 류경동, 「채만식 소설에 나타난 상품세계와 소비주체의 갈등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2, 2014, 11면.

> 물론 사람에 쌀하서 趣味는 다르오마는 아마도 우리 젊은이의 입에는 『피존』이나 『마코-』가 알마질가보오. 『카이다』를 조하하는 사람도 잇소.
> 『敷島』라든가 『朝日』—이러한 『구씨쓰게』는 섬나라사람에게나 마즐가하오. 『푸로레타리아트』는 『마코-』를 입에 물어야만 하는 이야기도 그럴 듯하게 들릴 것 갓소.[8] (강조점: 인용자)

> 궐연 담배는 필터식의 구부(口付)와 담배 양끝이 잘라진 양절(兩切)로 구분되었다. 1934년의 양절 담배로는 피존(10전/10개입), 마코(5/10), 메이플(5/10), 카이다(15/10), 난(7/10) 등이 있고, 구부 담배는 조일(朝日, 12/20), 부도(敷島, 15/20)가 있었다. 이 중에서 마코와 피존이 단연 인기 있는 담배였는데, 피존은 1920년대 말까지, 마코는 1930년대 말까지 담배 판매고 1위를 기록했다.[9] (강조점: 인용자)

마코와 메이플은 1개피에 0.5전, 피존은 1전, 카이다(해태)는 1.5전이었다. 마코와 피존이 단연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가격 때문이다. 식민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카이다는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일반 서민들이 사서 피우기에는 너무 고가였다. K가 피우는 해태는 '허영독본'[10]인 셈이다. 하지만 K가 해태를 피우는 행위를 반드시 허영독본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불알 두 쪽만' 남은 K이지만 책상 위에 놓인 '리카도의 지대론'이 상징하듯 그가 추구해 가고 싶은 세상은 늘 '일요일' 같은 세상이 아니다. '지주의 이익은 사회의 이익과 항상 대립된다'라는 명제로 유명한 리카도의 지대론이 이 대목에서 느닷없이 등장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

8) 박태원, 「기호일람표」, 『동아일보』, 1930. 3. 18.
9) 조이담|박태원, 『구보씨와 더불어 경성을 가다』, 바람구두, 2005, 181면.
10) 이상, 「동경」, 『문장』, 1939. 5, 142면.

S는 책상우에 노흔 책한권을 들고 뒤적거린다.
—리카-드의 지대론—
「요지음 독서허네그려?」
「흥……허기는 해야할터인데……」[11]

'허기는 해야 할 터인데'라는 고백이 암시하듯 독서되지는 않았지만 '리카도의 지대론'에 'K'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궁금하다. 리카도의 지대론은 '분배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12] '인구와 부가 성장함에 따라 한계 토지보다 우월한 토지의 생산물 중 지주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점차 증가한다'[13]는 것이 리카도의 주장이다. 아울러 리카도의 소득분배론은 '단순한 생산물의 분배가 아니라 가치의 분배'이며, '노동가치론에 입각하고 있다.'[14] 지대론에 대해 'K'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마도 지주에게 부가 점점 축적되어 가는 것과 달리 임금노동자에게 '가치의 분배'가 줄어들거나 무화되어 가는 현실을 마주한 때문일 것이다. '사롱 아리랑'을 드나들면서 '해태'를 피우는 욕망을 꿈꾸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함이 '해태'와 '지대론'으로 표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조각난 욕망은 당대 '창백한 얼골'들의 공통된 현상이었던 것 같다. 소설 속의 K나 S와 비슷한 시대앓이를 하던 한 잡지기자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 '나의 지금 하는 일은 益과 害를 비교하면 후자가 전자보담 훨신 크다. 더구나 그 익이라는

11) 채만식, 「창백한 얼골들」, 147-148면.
12) 이재율, 「리카도地代論 硏究」,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제5권 2호, 1999, 141면.
13) 박장환, 「리카도 지대이론의 성격과 주요 쟁점」, 경북대 경제경영연구소, 『경상논집』, 제31권 제1호, 2003, 89면.
14) 이재옥, 「리카도의 소득분배론 연구」, 경일대, 『논문집』, 16권 1호, 1999, 1464면.

것이 나의 이데올로기-보담은 딴 세상인 「자유주의의 조선」을 위한 것에 지나지 못한다'[15]라고. 이 고백은 당시 '창백한 얼골들'이 도달한 인식의 수준이며, 그래서 진실 되게 보인다. 자신의 의지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 처지를 어쩔 수 없이 묵인해야 하는 '창백한 얼골들'은 '자신을 단연코 용서하지 못할 일'[16]이라고 참회하면서도 세기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욕망하되 이룰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해태를 피우면서 조각난 자존심을 지키려는 S와 K의 행위를 '허위의식'[17]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3. '어데로 갈까'와 카프사건의 상관성

함께 거리로 나서자마자 'S'와 'K'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 불쑥 이야기를 나눈다.

> 두 사람은 거리로 나섯다.
> S가 문득 생각이 난 듯이
> 「평양 ×××사건 공판이 언제지?」 하고 뭇는다.
> K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 「글세……」
> 「이번 평양 간 길에 좀 봣스면 조켓는데……」
> 「공개허나?」
> 「허겟지……」
> 「참 이번에 캅푸 친구들이 단단히 당하는 모양이야.」

---

15) 浩然堂人, 「속임 업는 告白 나의 懺悔-잡지기자 懺悔」, 『별건곤』, 1931. 1, 98면.
16) 위의 글, 98면.
17) 류경동, 앞의 논문, 11면.

「뭘 아모것도 업다든데.」
「그럿치안타든데……」
「아니야. 아모것도 업는데 모초롬 걸녓스니까 째려너어노쿠는……」
두 사람은 안국동 네거리까지 나왓다.
「어데로 갈가?」[18]

위의 인용에는 '평양ㅈㅈㅈㅈ(고무공장)사건'과 '캅푸' 사건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 두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들은 이 두 사건이 갖는 맥락관계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다. 위의 인용에서 두 사건은 '풍문을 기초한 것이기에 모호'[19]한 사건으로 읽힐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리카도의 지대론과 분리해서 볼 경우 이 두 사건이 "'백화점 런치'나 '살롱'의 여급과 등가로 소비되는 것"[20]으로 읽힐 가능성이 짙다.

그런데 위의 인용을 주의 깊게 따라가면 '평양 ㅈㅈㅈㅈ사건'과 '캅푸'사건이 별건이 아니라 서로 연동되어 있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사건의 사실 관계와 두 사건 사이의 맥락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평양고무공장노동쟁의사건은 『조선일보』가 1930년 8월 8일에 보도함으로써 세상에 회자되게 된다.[21]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평양 소재 고무공장은 불경기가 심해지자 고용주들이 여직공의 임금을 10% 인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직공 2천여 명은 '현재의 공임으로도 입에 풀칠을 하기가 곤난한'데 '다시 공임을 나리게 되면 생활할 길이 끊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여 동맹파업을 단행하기로 하고, 1930년 8월 7일 정오까지 평양 소재 5개 공장 여직공 약 300명이 파업을 단행하였다는 것이다.

---

18) 채만식, 「창백한 얼골들」, 148면.
19) 류경동, 앞의 논문, 11면.
20) 위의 논문, 11면.
21) 『조선일보』, 1930. 8. 8.

1929년부터 불어 닥친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불경기는 전지구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평양고무공장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리고 평양에서 과거 10년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노동쟁의는 양말직공파업, 인쇄직공파업, 수상운반조합파업 등이 있었는데, 1930년에 발생한 고무공장노동쟁의가 유독 사회에 큰 파장을 미친 이유는 '평양 유사 이래 처음 보는 대노자(大勞資)의 쟁의'[22]였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이 소설을 발표할 즈음에는 『개벽』사에 근무하고 있던 채만식의 기자적 감각이 '일반'이 '주목한 사건'[23]을 외면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그리고 카프의 동반자작가였던 채만식[24]이 제1차 카프검거사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다. '조선공산당 공산주의자협의회사건'과 연관된 제1차 카프검거사건은 도쿄에서 발행되던 『무산자』의 국내 유포 및 영화 「지하촌」[25]

---

22) 金晩炯, 「新聞眼에 비취인 大事件 平壤고무 罷業大綱과 그 揷話二三」, 『鐵筆』 제1권 제3호, 1930. 9, 52면.

23) 『동아일보』, 1923. 7. 7.

24) 김기진은 1934년을 전후한 한국문인의 계보를 나누면서 사회주의 계열에 '캎프파'와 '동반자적 경향파'로 나누고 동반자적 경향을 보인 작가로 유진오, 장혁주, 이효석, 이무영, 채만식, 조벽암, 유치진, 안함광, 안덕근, 엄흥섭, 홍효민, 박화성, 한인택, 최정희, 김해강, 이흡, 조용만 등을 들었다.(김팔봉, 「朝鮮文學의 現在와 水準」, 『신동아』 4권 1호, 1934. 1, 46면.) 한편 백철은 동반자작가로 유진오, 이효석, 채만식, 엄흥섭, 홍효민, 김해강 등을 들었다.(백철, 『신문학사조사』, 민중서관, 1963, 277~279면.)

25) 카프 영화 진영이 분열되었을 때 본류였던 카프 영화부 청복(靑服)키노가 1931년에 제작한 흑백 무성영화(無聲映畵)이다. 1927년 조선영화예술협회의 연극부에서 영화 수업을 받은 강윤임(호: 강호 江湖) 감독이 제작과 연출을 하였고 박영희(朴英熙)가 각본을 썼으며 민우양(閔又洋)이 촬영하였다. 김정숙(金靜淑)·임화(林華)·강호·이규설(李圭卨)·이학래·이정애·신영 등이 출연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한강다리 밑 빈민들의 생활상을 묘사한 통속영화이다.(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6493&cid=40942&categoryId=33093)

사건이 빌미가 되어 카프동맹원들이 검거된 사건이다. 당시 신문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전하고 있다.

> 부내 종로서 고등계에서 지난 八月초순부터 검거활동을 개시하야 二개월여의 장시일간 취조를 계속하야오든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공산주의자협의회(共産主義者協議會)사건은 今五일 아츰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과 출판법위반(出版法違反)으로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 송치되었다.
>
> (중략)
>
> 逮捕된 關係者의 氏名
>
> 고경흠, 김삼규, 임인식, 황학노, 김효식, 한재덕, 송인수, 안필승, 권경완, 박영희, 윤기정, 송무현, 김기진, 이기영, 이평산, 권태용, 권일숙[26]

'조선공산당공산주의자협의회'사건은 1931년 8월 초순에 발생하여 두 달 여에 걸쳐 검거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치안유지법'과 '출판법위반'으로 10월 5일에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 송치되었는데, 17명이 구속되고 18명이 불구속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17명 중 임인식, 김효식 등 카프동맹원이 9명에 달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카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사는 카프와의 관련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 동경에서 출판활동을 하든 그들은 조선내지에 저급 농민들에게 공산주의를 선전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예술을 통하야 공산화(共産化)함이 득책이라하야 조선에 잇는 『프로』예술동맹을 리용하기로 작정하얏다.
>
> 그리하야 그들 중의 림인식(林仁植) 김효식(金孝植) 안막(安漠)이라는 안필승(安弼承)의 三명이 조선에 건너왓다.
>
> 그들은 동예술동맹의 간부 박영희(朴英熙) 등으로부터 집단(集團)

26) 『동아일보』, 1931. 10. 6.

군긔(群旗)라는 잡지로써 주의선전을 획책하얏다.[27]

협의회 사건이 발생할 당시 카프원 중 임인식, 김효식, 안막 등 3명이 동경으로부터 귀국하여 국내의 박영희 등과 협력하여 『집단』, 『군기』 등의 잡지를 통해 '주의선전'을 획책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중 카프맹원으로 기소된 것은 김남천뿐이었다.

지난 六일 종로경찰서에서 송국한 소위 공산주의자협의회(共産主義者協議會)사건은 작보와가티 十五일 오후 五시에야 겨우 긔고결정이 되엇다. 전후 피의자 十七명중에서 고경흠(高景欽) 등 四명만 긔소되고 림인식(林仁植) 등 十三명은 모다 불긔소 출옥이 되엇다. 긔소된 四명은 동경으로부터 온 사람들로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동지방법원 예심에 회부되엇는데 사건은 일본에서 모송비밀결사를 햇다는 것이며 소위 푸로예술동맹 등에는 아무런 관련이 업게 되엇다고 한다. 그리고 불긔소된 十三명이 피의를 밧든 사건은 모다 긔소됨에 족하지 안타고 하는 것인바 그 씨명은 알에와갓다.

▲ 기소= 고경흠 김삼규 황학노 김효식

▲ 불기소 임인식 함재덕 송연수 안필승 권경완 박영희 윤기정 김무현 김기진 이기영 이평산 권태용 권일숙[28] (강조점: 인용자)

『캅프』사건으로 재작년 종로경찰서를 거쳐 경성지방법원에 회부된 고경흠(高景欽, 24) 김삼규(金三奎, 26) 김남천으로 이름이 알려진 김효식(金孝植, 26)과 동일은행원 김철환(金鐵煥, 23) 등 네명에 관한 치안유지법위반 피고사건의 공판은 (중략) 근래에 보기드문 치안유지법 사건의 공판공개로 방청석에는 자리를 채웟엇다. 동경에서 발행한 팜플레트사건이 그 중요 피고사실이지마는 재판장은 주소성명을 들은 후에 고경흠으로부터 전향의 이론을 말하라고 하며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과거의 적색운동이 기우러진데서부터 전향하는 것의 정당성을 약 一시간동안 진술하고서 일시 휴정하기도 되엇다한다.

---

27) 『동아일보』, 1931. 10. 6.

28) 『동아일보』, 1931. 10. 17.

> 이 사건에 연좌된 황학노(黃鶴老)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하고 출정피고는 좌기 四명이엇다 한다. 고경흠 김삼규 김철환 김효식[29] (강조점: 인용자)

위의 인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 선 첫 번째 인용은 사건명을 '공산주의자협의회사건'이라 명명하고 있으며, 기소된 4명이 '비밀결사'를 했으나 '프로예술동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김효식을 제외한 모든 카프원들은 불기소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인용은 '공산주의자협의회사건'이라 지칭하지 않고 '캅프사건'이라 호명하였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처음부터 이 사건은 카프와는 무관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프를 길들이기 위하여 무리하게 검거하고 있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려웠다. 일반인들은 처음 체포자 17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9명이나 카프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카프사건으로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된 것 같다.

소설은 이런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 '평양ㅅㅅㅅ사건'이 빌미가 되어 카프원들이 구속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구속 사유가 없다는 것을 "뭘 아무것도 없다든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평양고무공장사건'과 '카프사건'이 연관되어 있지만, 카프원들에게는 구속사유가 없다는 것, 즉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이 소설은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데 모초롬 걸렸으니까 때려넣어 놓구는……"이라는 말은 정치권력의 무리한 집행에 대한 비판을 여과 없이 드러낸 대목이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문학적으로 연결하는 매개인물은 김남천이다. 평양고무공장노동쟁의사건에 연류되어 있는 카프맹원은 김남천뿐이었다. 채만식은 바로 김남천 때문에 이 사건에 더 깊은 관

29) 『동아일보』, 1934. 7. 21.

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김남천이 구속된 것은 평양고무공장 파업선동자로 지목되었기 때문인데[30], 정확한 죄명은 '치안유지법 위반'이며, 징역 2년형을 선고받는다.[31]

이처럼 민감한 시국사건을 소설에서 언급하는 것은 작가의 치밀한 숨은 의도 때문일 것이다. "어데로 갈까"를 묻는 주인공의 말 속에는 현실의 장에서 갈피 잡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문이면서 안개 정국 속에서 앞으로 어떤 내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깃들어 있다. "참 이번에 카푸 친구들이 단단히 당하는 모양이야"라는 말 속에는 제3자처럼 처신하는 주인공의, 사실에 대한 거리두기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소설 속에서 느닷없이 당시 매우 밀도 높았던, 평양고무공장노동쟁의사건에서 촉발된 카프원들에 대한 검거사건을 다룬 것은 그것이 카프에 대한 거리두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카프원들에 대한 염려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K가 양복바지 앞주머니에서 꺼낸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려 가는 대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갈 테건 왜×의 집으로 가세"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구속된 '카푸 친구들'과 대비되어 전당포 주인은 '왜×(놈)'으로 호명된다. 이 호명의 차이는 곧 주인공의 내밀한 속마음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다. 동반자작가 채만식의 현실 감각을 고려하면 '어데로 갈까'라는 말 속에는 점점 짙어가는 안개 정국 속에서 갈피 잡을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것이다.

> K는 양복바지 앞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어 보며 씩 웃는다. S도 마주 웃으며

---

30) 김윤식, 『임화연구』, 문학사상사, 1989, 530면

31) 「朝鮮思想事件判決 反帝國主義民族獨立支持同盟事件」, 『思想月報』 제4권 제6호, 1934. 9, 31면.

"입때 가지고 있으라고……갈 테건 왜ㅇ의 집으로 가세."
"그래 ㅇㅇ들은 그래도 물건은 알어보니까."
K와 S가 명치정으로 해서 진고개에 들어설 때에는 십원짜리 한 장이 전당표와 한가지로 K의 바지 뒤포켓 속에 들어 있게 되었다.
두 사람은 대판옥서점으로 가서 『개조』『중앙공론』『경제왕래』를 집어 들고 목차도 뒤적거리고 그중의 논문 한 절씩을 읽어도 보고 하다가 K는 『신청년』 S는 『킹』 한 권씩을 사 들고 나왔다.
아까다마의 나마비루 석 잔씩이 두 사람의 기운을 도왔다.[32]

"어데로 갈까" 묻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목적한 발걸음은 달리 없기 때문에 시계를 맡기고 받은 10원짜리 한 장을 들고 명치정을 거쳐 진고개의 대판옥서점으로 간다. 시계를 맡기고 받은 십 원짜리 한 장을 들고 K와 S가 먼저 찾은 곳은 '대판옥서점'이다. 그곳에서 둘은 "『개조』『중앙공론』『경제왕래』를 집어 들고 목차도 뒤적거리고 그중의 논문 한 절씩을 읽어도 보고 하다가 K는 『신청년』 S는 『킹』을 한 권씩을 사 들고 나왔다." 그리고 이내 '아까다마의 나마비루 석 잔씩'을 마시고는 '기운을 도왔다.' 『개조』『중앙공론』『경제왕래』『신청년』『킹』은 당대를 대표하는 교양잡지들인데, 『경제왕래』를 제하면 문학적 상징들이다. 이 감각을 이해하는 것이 이 소설을 읽는 이유일 것이다.

4. '(이 놈의 세상) 어떻게 될 거야'와 전복 가능성

발터 벤야민은 "도시보다 초현실주의적인 얼굴은 없다"[33]라고 했다. 도시의 얼굴은 매력적이고 화려하지만 이면에 기만적이고

32) 채만식, 「창백한 얼골들」, 148면.
33) 그램 질로크, 노명우 옮김,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판, 2005, 333면.

뒤틀린 암면이 공존한다. 그래서 위장된 가면에 홀린 사람들은 자주 토사물을 게워 내야 한다. 이런 근대화, 혹은 도시의 '마법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마법의 속임수와 음모를 영리하게' 눈치 챈 뒤 '잠행'[34]이 필요하다. 어쩌면 도시의 그런 측면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공간이 카페일 것이다. 당시의 카페는 '육감적이요, 더 나아가서는 육욕적인 것'[35]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조선 사람도 차를 마심으로써 육감적인 카페를 퇴치하고 가장 동방적인 이상 속에 있는 전아한 정조를 기를 수 있'는 다방을 추천하기도 했다.[36] 이런 시선들은 식민지 근대의 판타스마고리아에 대한 철저한 탐색을 필요로 하는 대목이다.

대판옥서점을 나온 K와 S는 카페 '아까다마(赤玉)'로 향한다. 거기서 그들은 생맥주 석 잔씩으로 '기운을 도'운다. '아까다마'는 영락정(永樂町) 2정목 75번지, 현재 저동에 위치한 카페로, 신문의 구설에 오르기도 한 카페이다.

> 시내 영락정 二정목 七十五번지의 적옥경성회관(赤玉京城會館)에서 밤살림을 하는 목촌야에고(牧村ヤェコ)(26)라는 여급은 지난 一일밤에 동「카페홀」에서 손님과 더부러 「딴스」를 한 것이 소관 본정서원에게 발각되어 六일에 동 「카페」 주인과 같이 본정서에 인치되엇다 한다.[37] (강조점: 인용자)

카페 아카다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기사이다. 당대 유행하던 '에로 그로 넌센스'의 진원지이기도 한 카페는 위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퇴폐와 에로의 온상으로 비치던 곳이다. 이런 카페의 맨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별건

34) 위의 글, 333면.
35) 홍효민, 「다방」, 『동아일보』, 1935. 6. 30.
36) 위의 글.
37) 『동아일보』, 1934. 3. 9.

곤』에 실린 밤풍경 탐사기이다. 잡지 『별건곤』에는 기자가 4대(隊)로 나뉘어 1929년 현재 경성의 밤풍경을 탐사한 탐사기가 실려 있다. 그 중 만물초(萬物草)라는 필명의 기자가 쓴 탐사기가 있는데, 아카다마가 연출하던 퇴폐와 에로의 장면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 北部에 잇서서 學生—特히 中學生의 歡樂境(?)이라는 말을 듯는 鐘路優美館엽 카페- 아까다마의 밤이다.
>
> 子正 後 두時半. 푸른 연긔 불근 술, 새쌀간 燕脂 蒼白한 白粉 고꾸라洋服의 校服正帽.
>
> (중략)
>
> 「먹자먹어…」「いやーよ この人」「그래 여보 마-쌍 사람을 그러케 괄세헌담」「이놈의 아까다마는 이러케 不親切헌가?」「술이다 술」「호호호호-」『다바꼬- 고- 히- 하하하」「먹어라 이자식」「來日학교에 가서 졸을 일이 걱정이다」[38]

'학생—특히 중학생의 환락경'으로 비치던 카페는 도입 초기부터 불량학생 양성소로 비췄다. 1925년 1월 25일자 『시대일보』가 '불량학생 풍기 취체, 경기도 보안과에서 신년의 첫 계획으로 제일 착수가 카페집 음식점'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이후부터 카페는 불량한 곳으로, 그곳을 출입하는 학생은 불량학생으로 낙인찍히기 십상이었다. 10여년이 지난 1935년 1월 18일자 『동아일 보』는 '학생풍기 총결산 탈선 행동 1,200건, 극장, 카페 출입이 최다'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한다. 이런 풍문은 현실 공간에 침투하여 카페는 '돈 있는 자제가 술과 계집을 얻으러 가는'[39] 퇴폐·환락·도피의 공간으로 규정되어 카페문화의 상징어로 자리하면서 카페를 바라

---

38) 「짝찍이를 嚮導삼어 記者總出 大京城暗夜探査記」, 『별건곤』, 1929. 12, 34~35면.

39) 「인테리 여급 애사」, 『삼천리』, 1932. 9, 73면.

보는 대중의 시선은 따가웠다. 카페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카페를 출입하는 '돈 있는 자제'가 그만큼 많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근대의 도시이미지가 만들어낸 모습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눈여겨볼 것은 신경과민이다. 게오르그 짐멜은 도시에 사는 개인들의 전형적인 심리적 기반은 신경과민이라고 갈파한 바 있다.[40] 신경과민은 내·외적 자극이 급속도로 끊임없이 바뀌는 데서 기인한다고 본 짐멜의 진단이 있기 전에 박태원은『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식민지 수도 경성을 프로므나드하면서 신경과민에 대해 지적했었다. 소설에서 구보는 스스로 신경 쇠약 환자임을 고지한다. 그러면서 그는 '온갖 사람을 모두 정신병자라 친찰(親察)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41] 느낀다. 그가 관찰한 신경 증상은 다양하기도 하다.

> 意想奔逸症, 言語倒錯症, 誇大妄想症, 醜猥言語症, 女子淫亂症, 支離滅裂症, 嫉妬妄想症男子淫亂症. 病的寄行症, 病的虛言欺騙症, 病的不德症, 病的浪費症[42]

식민지적 상황에 노출된 조선의 생활인들에게서 읽어낸 신경과민 증상의 사례라고도 할 수 있지만, 현실 감각에 좀 더 민감한 지식인들은 신경과민에도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다방이 "가장 물적으로 현대 지식인의 무기력, 무의지, 무이상, 태타, 물질적 궁핍, 진퇴유곡된 처지를 나타내는 곳"[43]이라고 현민이 지적했지만, 카페라고 해서 거기서 멀리 있지는 않았다. K와 S가 들린 카페는 근대화 되어 가는 식민지 수도 경성의 뒤틀린 암면

40)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윤미애 옮김,『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2006, 새물결, 36면.
41) 박태원,「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조선중앙일보』, 1934. 9. 14.
42) 위의 소설, 같은 일자.
43) 현민,「현대적 다방이란」,『조광』, 1938. 6, 158면.

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근대의 축소판인 셈이다. 이들은 근대의 속도감이 만들어내는 외부 환경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지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방어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 앞서 살펴본 '카푸 친구들'의 검거에 대한 태도, 전당포 주인을 '왜×(놈)'으로 호명하는 것, 한강에서 선유배와 대조되는 '일본 사람 내외'가 탄 '모터보우트'만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될 거야'라고 진단하는 심정에는 방어메커니즘이 작동한 예이다. 이런 방어메커니즘은 일제가 이식한 근대적 삶이 추동한 위기감에서 연유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버거웠던 절대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다방이나 카페를 드나드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와 S가 카페를 드나드는 것을 당시의 유행병에 편승한 것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K와 S는 발터 벤야민이 말하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뮤자르, musard'라기보다는 '돌아다니면서 탐구하는' '진정한 산책자'[44]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벤야민은 일반적으로 산책자에게 있어 도시는 '산책하면서 즐거움, 기분전환과 새로움을 발견하는 풍경이 된다'[45]고 했지만, K와 S에게 경성은 방랑하는 목적도 없이 자기만족을 위한 오만한 부르조아를 위한 도시가 아니었다. 초라한 행색의 주인공들은 댄디가 아니었기 때문에 판타스마고리아적으로 드러낼 무대의 주인공도 아니었다. 철저히 관찰자적 위치에서 관상하는 도시 풍경은 소비되는 시간의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질량감이 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의 도시 풍경의 재현은 소극적 저항으로 읽힌다.

---

44) 그램 질로크, 노명우 옮김,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판, 2005, 308면. 장유정, 『다방과 카페, 모던보이의 아지트』, 살림, 2012, 34면.

45) 위의 책, 302면.

'회사원, 은행원, 관리, 신문기자, 문사, 학교 교원'[46]처럼 '돈 있는 자제'들이 주로 이용하던 카페는 1931년 당시 서울에 74곳이 있었으며, 510명의 여급이 카페업에 종사하고 있었다.[47] 당시 '나마비루' 한 잔의 가격이 '40전', 조선인 남자 노동자 하루 일당이 '60~80전'[48]인 것을 고려하면 K와 S가 마신 석 잔의 값, 즉 1원 20전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훌쩍 넘어선다. 이런 고가의 맥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백수건달인 'K'와 'S'에게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당시 카페의 주요 고객이 '돈 있는 자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직의 무푼인 두 주인공은 그곳을 '프로므나드'하였다. 저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카페에 대한 당시의 시선이 매우 곱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외면할 만큼 감각의 촉수가 무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 시내에 잇는 「카페」의 내용 개선에 대하야 당국에서는 여러가지로 당입자들에게 루챠 주의를 식히엿스나 의연히 규측 위반자가 만흔중 더욱이 녀「뽀이」 고용관계에 여러 가지로 물미한 뎜이 만허서 풍속공안상 적지아니한 해를 끼치는 터인 바 시내에서 카페가 가장 만흔 곳을 관할하는 시내 본뎡서에서는 작십사일 오전 열시부터 관내 카페 영업자 오십삼명을 동서루상으로 모하 가지고 영목 서댱으로부터 결뎜 개선에 대한 엄중한 주의를 식히엇다는데 그 내용은 전부 아홉 가지 조항으로 작부나 녀「뽀이」들을 「카페」 문간에 내어보내여 객을 끄는 등사는 절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위시하야 고용녀자에 대한 취체이라더라[49]

카페는 '술과 게집 그리고 엽기가 잠재하여 있는 곳'[50]이라는

---

46) 장유정, 『다방과 카페, 모던보이의 아지트』, 살림, 2012, 35면.
47) 「서울을 좀먹듯 하는 紅燈靑燈의 「가뤠」-요염한 여급의 추파에 녹아서 雲散霧消하는 大金」, 『매일신보』, 1931. 10. 3.
48) 강준만, 『고종 스타벅스에 가다』, 인물과 사상사, 2005, 42면.
49) 「「카페」 嚴重團束 본뎡셔의 털퇴」, 『동아일보』, 1927. 6. 15.
50) 「인테리 여급 애사」, 『삼천리』, 1932. 9, 72면.

인식이 확산되어 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카페수는 점점 늘어가고, 여급도 늘어갔다. 더불어 카페 혹은 카페문화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가중되었다. 카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사고들이 연일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카페는 동경과 유혹의 공간이었지만 〈선악〉과 〈호불호〉가 공존하던 곳이었다. 다음 인용들은 당시 카페(카페문화)가 만들어내고 있던 풍경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각인되어 가고 있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 지난 二十九일 새벽 한시경에 대도정(大島町) 一○ 카페-애서 어떤 사람이 시내 금정(錦町) 사는 한덕희(韓德喜)(28)를 한 되드리 술ㅅ병으로 머리를 따려 노막염으로 드듸어 작三十일 오후에 사망하얏는데 가해자는 그길로 도망하야 주소성명을 몰라 소관 룡산서에서 극력 수색 중이든 바 금 一일 오후 一시에 경정(京町)十一번지 철공소에서 필경 체포되어 상해치사죄로 인치 취조중이다. 범인은 주소 부정의 증정정정(曾井情靜)(24)으로 판명되엇다.[51] (강조: 인용자)

카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던 사건사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위의 기사는 가장 극단의 지점인 살인사건에 관련된 것인데, 주목할 것은 살인범이 '증정정정'이라는 일본인이라는 것이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카페는 일본식 근대가 이입한 문화현상 중 하나였으며, 카페 여급과의 사랑담은 심심찮게 흘러나오는 에피소드였다. 경성제대 의학부 한 학생이 '봉자(峰子)라는 카페여급과 열렬한 연애를 했는데 그 여자는 처자 있는 제대 학생과의 이루지 못할 사랑을 비관하여 한강에 투신자살한 사례도 있었다.[52] 이런 사유로 인해 당국은 카페를 단속하기에 이른다.[53]

당시 카페문화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다. 카페걸(웨이트레스),

---

51) 「카페에서 殺人」, 『동아일보』, 1931. 5. 2.
52) 이충우 · 최종고, 『다시 보는 경성제국대학』, 푸른사상, 2013, 207면
53) 『동아일보』, 1931. 9. 24.

술, 음악(재즈)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 카페걸은 단연코 카페문화의 꽃이다. 당시 여자고보를 졸업한 인텔리층의 여성들도 기꺼이 카페걸을 자임하던 상황을 염두에 두면 카페는 단순히 '부르조아의 한 개 상품'[54]만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듯하다. 이런 내막을 『삼천리』 기자는 적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카페의 웨트레쓰라고 덥허노코 매음녀니 천한 여자니 하고 욕설함은 인식 부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55]이라는 일침은 곱씹어 볼 대목이다. K와 S에게 포착된 카페 아카다마는 이런 공간이었던 것이다.

'아까다마(赤玉)'에서 생맥주 석 잔씩으로 '기운을 도'운 K와 S가 향한 곳은 한강이다. 이 한강은 '아까다마'의 유흥과도 곧장 연결되는 놀이의 공간이다. '한강'으로 갈지 '절'로 갈지를 고민하던 두 사람이 도착한 한강에서 나레이터는 이 둘의 시선을 통해 중요한 현상을 포착해낸다. '여름철의 한강'이 '서울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고마운 곳이지만 그 고마움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한다. "왕복 찻삯 십전을 낼 돈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이상의 레벨에 속한 사람들"[56]에게만 한강은 고맙다. 여기서 K와 S가 한강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부류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들의 의식 속에는 선유배/모터보우트, K와 S/일본 사람 내외가 명확히 대립구도를 형성한다. 그리고 대립의 중간지점에 전매국의 '저년'이 자리하고 있다.

선유배는 K와 S가 타는 배로 '돈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 타는 배, 반대로 모터보우트는 '돈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인 '일본 사람 내외' 같은 부류가 타는 배이다. 이런 구분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 팔자 같은 놈은 없고나"라는 문장

54) 「인테리 여급 애사」, 『삼천리』, 1932. 9, 73면.
55) 위의 글, 73면.
56) 채만식, 「창백한 얼굴들」, 13면.

과 호응을 이루면서 근대에 대한 부정적 의미는 한층 짙어진다. 다음의 인용 몇을 통해 곱지 않은 시선이 연유하는 이유를 눈치 챌 수 있다.

> 뜨거운 여름철 왼종일 몬지를 먹고 땀을 흘리다가 저녁에 시원한 바람이나 쏘이고저 시외 한강인도교부근에 수만명의 남녀가 모여 선유를 하는 등 하로의 피로를 잊으려는 선유객에게 용산서에서는 소위 에로행동에 대하야 엄중한 취체의 눈을 대고 고심하여 오든 바 종래 한강 선유는 무등화로 상하없이 통행자재하엿는데 어더운 밤에 강상에서 뽀드가 복잡하게 뜨고 그중으로 모다뽀드가 쾌속력으로 질주하야 매우 위험한 상태를 연출하므로 모다뽀드에만 등화를 가지게 하도록 당업자에게 통고를 하엿다고 한다.[57]

'모다뽀드'가 연출하는 속도감과 위협은 당국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예외적으로 '등화'를 하도록 했다는 것은 '모다뽀드'만이 갖는 특권과 무관하지 않다. 그 특권이라는 것은 보트 애호가만을 위한 구락부가 따로 만들어지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뽀-트」 애호가(短艇愛好家)들을 위하야 환봉구락부(煥鳳俱樂部)라는 구락부가 새로히 생기엇는데, 조선인 유일의 구락부로 그 본부를 한강 인도교(人道橋) 아래에 두고 「뽀-트」운동가들의 편의를 도웁는다더라.[58]

그런데 이런 특권은 일탈과 연결되곤 했다.

> 봄철도 지나가고 여름철이 차저와서 사람마다 물과 친해질 시절이 닥처왓다. 요지음 한강에는 매일같이 수만흔 유선객들이 차저온다는데 이 유선객들의 대부분이 학생들로서 그중에는 여자들과 가치 배놀리

57) 「快速短艇에 燈火設置命令」, 『동아일보』, 1933. 8. 10.
58) 「「뽀-트」俱樂部」, 『동아일보』, 1924. 7. 31.

하는 사람이 十분의八九이라 한다.

물론 그들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으나 대부분이 불미한 증상을 이르킨 사실이 비일비재함으로 용산경찰서고등게에서는 금후로 한강에 유선한 학생들 중에서 여자들과 동승한사람을 발견하는 대로 직접 당자들에게 주의를 시킬 방침을 세우고 잇으나 만일에 이 결과가 역시 별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각학교 당국자들과 연락을 취하야 특별취체할 방침을 세우리하고 한다.[59]

경제적 특권의 상징으로서의 '모터보우트'와 일탈이 곧장 연결되지는 않지만, K와 S와 눈에 그것이 예사롭게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 이유로 이 둘의 연결고리에 전매국의 '저년'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K는 우둑허니 한 곳만 바라보고 잇다가
"저년이 또 나왓네그려!" 하고 손으로 가르킨다.
"무언데?" 하고 S가 바라본다.
"칼멘 말이야"
"전매국?"
"응"
"저년이 짝패가 잇더니 오늘은 혼자만 나와서."
"네 팔자도!"
"흥, 팔자가 엇더케? 전매국 담배봉지에서 썩는 것 가틀가?[60]

'전매국 저년'이 '칼멘'으로 호명되는 이유가 궁금하다.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전매국이 창업될 당시 남자 약 4,400명, 여자 약 900명이었는데, '수공업이 기계작업으로 개조되고, 능률 증진'[61]에 의해 1931년 9월말 현재 전매국의 직공은 2,842명이며,

59) 「女子와同乘한뽀-트客은團束」, 『동아일보』, 1936. 5. 7.
60) 채만식, 「창백한 얼골들」,
61) 『朝鮮及滿洲』 335호, 1935, 96면.

여공의 경우 20세 미만 여공이 54.2%, 30세 미만이 37%에 달했다고 한다.[62] 전년도의 경우 전체 직공이 2,942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여직공이 1,575명이었다고 하니[63], 아마도 1년 뒤의 여직공 수도 1,500여 명 내외였을 것 같다. 전매국의 경우 여초 현상이 뚜렷한 이유는 낮은 임금 때문이었지만, 장혁주의 소설『무지개』에서도 '혜영'이 전매국 여직공으로 취직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64]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했던 당시에 전매국은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직장이었던 것 같다. 여직공이 받는 임금은 하루 30전 내외였으니[65], K와 S가 '저년'을 '칼멘'으로 보는 데는 비약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한강변의 여유〉를 누리는 여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K와 S가 '저년'을 '칼멘'으로 호명하는 것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토월회에 의해 1924년 '칼멘'은 조선에 소개된다. 당시 소개 기사에는 '카르멘이라는 악독한 여자의 악독한 솜씨'[66]라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런 기사는 '카르멘'이라는 여성 주인공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아울러 '불갓치 타는 사랑을 피로서 그려논 연애비극'[67]으로 소개되면서 카르멘은 '비극의 결말로 끝날 악독한 여자'의 상징으로 이미지화되었을 것이다. '저년'이 치명적인 미모와 폭력적 관능의 소유자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K와 S가 '저년'을 '칼멘'과 동일한 의미로 호명하는 데에는 이러한 당대의 시선이 녹아든 때문이다. 즉, K와 S의 시선에 비친

62)『동아일보』, 1931. 7. 21.
63)『동아일보』, 1930. 11. 18.
64) 장혁주,『무지개』,『동아일보』, 1934. 2. 19.
65) 박윤석,「잃어버린 근대를 찾아서-머리를 비비대며 보릿대로 쭉쭉 빠는 '사랑의 아이스커피'」,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0629/5
66)『동아일보』, 1924. 7. 3.
67)『매일신보』, 1926. 10. 16

전매국 여인을 '저년'으로 호명하는 것은 칼멘이 연초공장의 여공이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칼멘이라는 여자는 절대로 한 남자만으로는 사랑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여자'[68]여서 '전매국 담배봉지 썩는 것'처럼 부패하고, 방탕하고, 악독한 여인으로 평가하면서, '한 적은 게집으로 말미암아 수염 난 남아들이 얼마나 롱락되며 나라를 기우리는 미인'의 '최후'[69]가 비극으로 끝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호명한 것이리라. '저년'은 나쁜 피의 정념으로 도덕을 파괴하는 '년'으로 규정된 셈이다. '세상의 요부의 일반적 대명사'[70], '매춘가의 여인'[71] ''남자 가슴에 칼을 꽂는 열정녀'[72]라고 칼멘을 호명하는 방식은 '저년'을 바라보는 이미지와 겹친다.

그런데 칼멘은 전통적인 여성의 이미지와 당대의 도덕을 뛰어넘는 인물이었기 때문 요부로 덧칠하여 그녀를 '저년'으로 몰아간 것은 남성우월의식이 만들어낸 가공의 덫이라 할 수 있다. '가족에 속한 남자'와 '가족 질서에서 배제된 여자' 사이의 연애[73]가 초점인 칼멘 서사는 남성중심의 가족 제도가 창출한 여성 비하에 대한 가벼운 저항인 셈인데, 남성들은 그 저항조차도 용인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오늘의 기준에서는 '저년'의 행태는 일상의 삶속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일이겠으나, 당시에 '저년'의 행태는 매우 낯설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년'이라는 근대녀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

68) 「중앙무대 칼멘을 상연」, 『동아일보』, 1938. 8. 30.
69) 『동아일보』, 1924. 6. 30.
70) '정열 편 「카르멘」, 『중외일보』, 1928. 3. 14.
71) 「매춘가에 애인 두고 젊은 인쇄공 범죄-칼멘을 밤마다 만나보고저」, 『조선중앙일보』, 1935. 5. 20.
72) 「변심한 안해의 양안을 刺傷」, 『동아일보』 1933. 10. 23.
73) 백현미, 「번역된 서양의 연애/극」, 이화어문학회, 『이화어문논집』 35호, 2015, 125면.

시선은 전매국이라는 근대의 상징 공간과 '저년'이 상징하는 근대성이 조합되어 만들어낸 〈근대의 이미지〉에 대한 K와 S의 비판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비판의 시선은 '모터보우트'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겹치면서 곧장 일제에 의해 이식된 식민지의 근대에 대한 한 묶음의 비판으로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한강의 유흥이 '왕복 찻삯 십전을 내일 돈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잇는 사람으로부터 그 이상의 레벨에 속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사실을 표나게 드러내는 K와 S의 진술 때문이다. 일제가 이식한 근대의 이중성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이 '저년'에게 삼투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래서 K와 S는 세상에 대한 탄식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이다.

> 두 사람은 묵묵히 맥주만 드리킨다. 한참만에 K가 혼자말로 중얼거린다.
> "어터게 될 거야!"
> "무엇이?"
> "이놈의 세상이……"
> "이놈의 세상……"
> "그래."
> "하긴 그래!"[74]

K와 S는 '이 놈의 세상'이 전복되기를 꿈꾼다. 이분법적 구획선 안으로 포섭되는 세상에서 나 아닌 저쪽에 대한 불만은 상당하다. 비록 '신청년'으로서 당대 가장 인기 있던 잡지인 『킹』을 보면서 일본이 이식한 근대를 표면적으로는 내면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K의 내면에는 오히려 근대에 대한 비판의 시선이 도사리고 있다. 살롱, 해태갑, 『신청년』/『킹』, 차이니스 런치, 아이

74) 채만식, 「창백한 얼골들」, 149면.

스커피 등으로 눈과 입은 호사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그런 호사가 만들어내는 달콤한 유혹을 내면에 깊숙이 받아들여 식민자를 내면화하는 대신 '이 놈의 세상'이 전복되기를 갈구하는 속내를 드러내는 K와 S의 처세는 그래서 혼돈이다. 외면과 내면의 반복되는 갈등은 외면의 세계에 쉽사리 길들여지지 않으려는 내면세계의 길항에서 비롯된 것이며, 길들여지고 싶지 않은 내면이 K와 S의 본심인 것이다. 하지만 전복을 희망하나, 본인이 주체가 되어 그것을 결행할 수 없는 답답함에 K와 S는 더욱 '창백한 얼굴'이 될 수밖에 없다.

5. '말세야'라는 말 속에 담긴 세상의 품격

이상은 '은좌는 한 개의 허영독본'[75]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바로 그 '허영독본'을 이식한 식민지 수도 경성을 프로모나드하면서, 역시 근대를 프로모나드하는 신세대를 관찰하는 K와 S의 시선 속에는 불편한 심기가 묻어 있다.

> 정자옥에서 나와 진고개로 다시 들어섰다. 두 사람의 압헤 신녀성과 양복쟁이가 나란히 서서 걸어간다.
> 엇전지 얼쩌어 보인다.
> "네나 내나 요보가 진고개 무슨 일이가 잇냐!" 하고 S가 픽 웃는다.
> "그건 그래도 나어이……상투쟁이래야 제격이지."
> "저건 모·보ㄴ데."
> S가 보니, 응 아닌게 아니라 옷과 몸매가 모·보로 된 친구 하나가 쓱 지나간다.
> K는 눈초리로 고소를 하며

75) 이상, 「동경」, 142면.

"그래 모·보는 모·보야…단 조선놈 모·보는 Modern Yobo라는 모·보야, 하하."[76]

이 인용에서 모보를 요보라고 지칭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자기비하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에서 비롯된 모던보이나 모던걸을 추수하는 조선의 모던보이나 모던걸에 대한 비난의 의미이다.

"신시대의 신여자로 모든 전설적 인습적 보수적 반동적인 일체의 구사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77]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신여자선언〉이 발표된 이후 식민지 조선에는 외양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신여성, 즉 모던걸이 삶의 영역 속으로 훅 들어온다. 단발, 양장, 구두로 대변되는 신여성의 외양은 당시 문화계에는 충격이었으며, 자주 그들의 자유분방함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곤 했다. 김동인의 「김연실전」, 염상섭의 「제야」, 「검사국 대합실」, 「삼대」 등에서 신여성의 자유연애를 타락한 성윤리로 몰아세우는 것도 당시의 분위기를 압축해 보여준 셈이다. 여성 해방을 전제로 한 신여성들의 사회개조운동은 남성중심사회에 대한 균열과 위기를 고조시켰으며, 그런 위기에 민감한 남성들은 신여성들을 유녀[78]로 취급하기도 했다.

이런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던 시대에 모던보이나 모던걸에게는 '연애'와 '도덕'이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된다. 즉, 전통적 질서에 기대고 있는 이들에게 자유로운 연애는 윤리 도덕 및 사회 질서의 큰 적으로 간주되곤 했다. 그리고 그런 질서 파괴범들은 외양, 즉 옷이나 장신구를 통해 한눈에 '모·보'나 '모·걸'로 호명되었고,

---

76) 채만식, 「창백한 얼골들」, 149-150면.

77) 김원주, 「우리 여자의 요구와 주장」, 『신여자』 2호, 1920. 4. 『경향신문』, 1999. 12. 17일자 재인용.

78) 박영희, 「유산자 사회의 소위 '근대녀'·'근대남'의 특징」, 『별건곤』, 1927. 12, 114면.

조선인 모보는 비하적으로 '요보'로 지칭되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모던보이를 '요보'로 호명한 것에는 K와 S의 내면의식이 여과 없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혹 모던보이의 생활을 '청신한 감각의 세계'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이단자의 세계'로 보는 것에 못마땅해 하는 부류도 있었지만,[79] 그들의 호명에는 '구십퍼센트는 양풍'[80]이라는 외양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연애와 양풍 때문에 모던보이를 '요보'라고 K와 S가 비판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여기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보 혹은 요보로 지칭되는 새로운 인류가 수용한 건강성에 기초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기보다는 '허화부박'[81]이라는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양을 중심으로 이들의 가치가 매겨졌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모던걸들에 대한 평가는 매우 가혹한 편이었다. 아직 실체가 분명하지 않던 시절에 모던 걸의 등장은 전통 질서에 익숙한 남성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족속으로 간주되곤 했다.

> 의복과 외모에만 「모단썰」이 된다면 우리는 「모단썰」을 저주할 수밧게 없겟다. 조선의 「모단썰」은 일본의 「모단썰」과도 다른 뎜이 만타. 처디와 시대가 그들과는 다르다. 다쓸어저가는 사회의 주부일 뿐만 아니다. 조선을 다시 일으킬 테 이 국민의 어머니들이다.[82]

당시 전통질서 수호자들에게 모던걸은 '의복과 외모에만 모던걸'로 비쳤던 것 같다. '조선을 다시 일으킬 때 국민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주기를 바라는 남성들의 바람에는 모던걸의 대사회적 역

79) 박팔양, 「모-던 뽀-이 촌감」, 『별건곤』, 1927. 12, 116면.
80) 최서해, 「쎄카단의 상징」, 『별건곤』, 1927. 12, 120면.
81) 김기진, 「요사히 신여성의 장처와 단처」, 『신여성』, 1925. 6, 39면.
82) 「조선의 「모단썰」, 『조선일보』, 1927. 6. 26.

할론도 부여되고 있었다. 모던 세대의 대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근저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던걸 뿐만 아니라 모던보이에게 거는 기대만큼 그들에 대한 평가 또한 혹독했다. 세대 일반(generation in general)이라기보다는 세대특수(generation specific)에 해당하는 모던 세대는 특수 세대라고 할지라도 대중문화와 소비문화의 주체였다는 점에서 대중의 시선에 빈번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K와 S의 시선에 포착된 '신녀성과 양복쟁이'는 '옷과 몸매'에 의해 '모·보로 된 친구'로 규정되고 '단 조선놈 모·보'이기 때문에 'Modern Yobo'로 비하된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이런 비하가 모던 세대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모던 세대를 양산하는 근대를 향한 것인지이다. 전자를 향한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전통 질서를 고수하려는 시선에 포착된 세대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겠지만, 후자라면 그것은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근대를 이식한 주체, 즉 제국을 향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모던 체험은 약간의 시차를 인정하더라도 일본이나 조선에서 거의 〈공시적〉으로 경험될 수 있었다.[83] 하지만 K와 S는 유독 '조선놈 모·보'만을 지칭하여 일본인이 조선인을 얕잡아 부르는 'Modern Yobo'라고 자기 비하식 비판을 하고 있다. 이것은 K와 S가 근대의 대중문화와 소비문화에 대해 민족적 감정을 앞세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대응논리는 외양만을 공유하고 있는 모던 세대에 대한 비난에서 촉발된 것이지만, 돌이켜보면 '허영독본'을 양산하는 제국에 대한 비판으로 읽는 것도 무리한 것

83) 모던 걸이라는 용어는 기타자와 히데카즈(北澤秀一)가 일본의 『女性』지 1924년 8월호에 처음 언급한 뒤 1926년부터 널리 사용되었다.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24면) 그런데 박영희는 1927년 현재 서울에서도 '모던걸, 모던걸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유산자 사회의 소위 '근대녀'·'근대남'의 특징」, 『별건곤』, 1927. 12, 114면)라고 밝히고 있어 공시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은 아니다.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자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바라보는 K와 S도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K와 S가 '신여성과 양복쟁이'를 비난하고 있는 것은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해준다. 따라서 K와 S의 비판은 표면적으로는 '신여성과 양복쟁이'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내면에는 '신여성과 양복쟁이'를 양산하는 세상, 즉 제국을 향한 비난의 시선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K와 S는 현재의 조선을 '말세'[84]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점점 더 '창백하여 보이는' 얼굴을 숨길 수 없다.

6. 결론

「창백한 얼골들」은 K와 S라는 산책자를 등장시켜 근대를 주유하면서 그들의 시선에 포착된 근대를 진열하고 있다. 진열된 근대 속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비판적 시선에 의한 일침이다. 도시의 탐침을 통해 채만식은 억압과 통제 속에서 침묵할 수 없는 언어로 한 편의 고현학적 보고서를 써내고 있다.

무직인 소설 속의 주인공 K와 S는 고가의 해태 담배를 피우거나, 대판옥서점에 들러 당대 인기 절정이던 『킹』 등을 들춰보거나, 카페 아카다마에서 '비루'잔을 기울이며 근대를 프로므나드한다.

그런데 이들의 프로므나드는 당대 식민지 모국의 젊은이들이 긴좌 거리를 '부라부라'하며 근대를 걷던 허영독본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카프 사건에 대한 K와 S의 시선이다. 리카도의 지대론을 들먹이면서 이미 그들은 이식된 근대의 왜곡에 대해 촉수를 들이밀고 있던 차인데, 카프사건에서 그

84) 채만식, 「창백한 얼골」, 150면.

들의 비판의 시선은 분명해 진다. '아모것도 업는데 모초롬 걸녓스니까 ㅈㅁ려너어노쿠는'이라는 대화 속에서 카프사건을 기획한 당국에 대한 채만식의 비판의 목소리는 노골화 된다. 이런 비판의 시선은 카페 아카다마를 밟고, 다시 한강변을 노니거나 모터보트에 몸을 싣고 한강의 여름을 즐기는 보트족들에게로 향한다. 특히 '돈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인 '일본 사람 내외'가 타는 모터보트에 머물던 시선은 초점 이동을 하여 전매국 여인에게로 향한다. 그녀를 다짜고짜 '저년'이라고 호명할 때 K와 S의 뇌리 속에는 칼멘이 자리하고 있었다. 칼멘이 연초공장 여직공이었다는 점 때문에 전매국 '저년'은 칼멘으로 호명되지만, 그 이면에는 〈한강변의 여유〉를 누리는 여성이라는 점과, 비극의 결말로 끝날 '악독한 여자'라는 상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보를 요보라고 칭하는 K와 S의 심상 지리에 이르면 채만식이 비판하려는 근대성은 한층 도드라진다. 모보 혹은 요보로 지칭되는 새로운 인류의 등장이 미치는 건강성보다는 '허화부박'이라는 키워드로 수렴되는 외양 중심의 근대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 K와 S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이유가 가시화된다.

이처럼 채만식의 「창백한 얼골들」은 식민지 근대의 상징인 경성을 프로므나드하는 K와 S의 시선을 통해 채만식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근대의식이 모자이크된 작품인 셈이다. 저항과 전복의 길을 모색하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존재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짐으로써 창백해져 가는 얼굴의 룸펜들은 1931년 11월에 도달한 딱 그만큼의 조선의 지성들이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동아일보』『매일신보』『별건곤』『思想月報』『삼천리』『朝鮮及滿洲』『조선중앙일보』『중앙일보』

〈논문 및 단행본〉

강준만, 『고종 스타벅스에 가다』, 인물과 사상사, 2005, 42면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24면
김기진, 「요사히 신여성의 장처와 단처」, 『신여성』, 1925. 6, 39면
김낙년 편, 『한국의 경제 성장 1910-1945』, 서울대출판부, 2006, 203면
김만형, 「新聞眼에 비취인 大事件 平壤고무 罷業大綱과 그 揷話二三」, 『鐵筆』 제1권 제3호, 1930. 9, 52면
김윤식, 『임화연구』, 문학사상사, 1989, 530면
김팔봉, 「朝鮮文學의 現在와 水準」, 『신동아』 4권 1호, 1934. 1, 46면
류경동, 「채만식 소설에 나타난 상품세계와 소비주체의 갈등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2, 2014. 11, 11면
박선희, 「경성 상업공간의 식민지 근대성 : 상업회사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41권 제3호, 2006, 306면
박영희, 「유산자 사회의 소위 '근대녀'·'근대남'의 특징」, 『별건곤』, 1927. 12, 114면
박장환, 「리카도 지대이론의 성격과 주요 쟁점」, 경북대 경제경영연구소, 『경상논집』, 제31권 제1호, 2003, 89면
박팔양, 「모-던 뽀이 촌감」, 『별건곤』, 1927. 12, 116면.
백 철, 『신문학사조사』, 민중서관, 1963, 277~279면
백현미, 「번역된 서양의 연애/극」, 이화어문학회, 『이화어문논집』 35호, 2015, 125면
이 상, 「동경」, 『문장』, 1939. 5, 142면
이재옥, 「리카도의 소득분배론 연구」, 경일대, 『논문집』, 16권 1호, 1999, 1464면
이재율, 「리카도地代論 硏究」, 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제5권 2호, 1999, 141면
이충우 · 최종고, 『다시 보는 경성제국대학』, 푸른사상, 2013, 207면
장유정, 『다방과 카페, 모던보이의 아지트』, 살림, 2012, 35면

조이담, 박태원, 『구보씨와 더불어 경성을 가다』, 바람구두, 2005, 181면
최서해, 「쩨카단의 상징」, 『별건곤』, 1927. 12, 120면
허수열, 「식민지기 조선인 1인당 소득과 소비에 관한 논의의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50호, 2015. 12. 85면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윤미애 옮김,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2006, 새물결, 36면
그램 질로크, 노명우 옮김,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판, 2005, 308면

(**투고일**: 2017. 6. 30 **심사완료일**: 2017. 8. 15 **게재확정일**: 2017. 8. 16)

이름: 노상래
소속: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전화번호: 053-810-2120
전자우편: yunc82@ynu.ac.kr

[Abstract]

'Pale Faces' Detouring the Modern Times

- Focusing on the 「Pale Faces(창백한 얼골들)」 by Chae Man-sik-

Roh, Sang-Rae

This dissertation was designed to explore the modernity of the novel, 「Pale Faces」 by Chae Man-sik. Despite the short novel, this novel takes a system of sharing chapters. It is peculiar that there are important phrases such as 'I can't help doing something.' 'Where to go?' 'I will figure it out somehow in this flipping world.' 'End of the world' etc., to reveal the theme of the novel distinctly in each chapter. There is a sense of the times or the consciousness of the writer that the author would like to disclose in these phrases. This kind of meaning configuration unites events, space, and characters organically and also extends its meaning in the plot of the story.

This paper explored what this novel tries to express eventuall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vel's meaning configuration. Especially this novel disclosed the bare face of the modern times that Japanese imperialism transplanted through the episodes made up of materials such as cigarette Haetae, a KAPF affair, Cafe, Modern girl or Modern boy, Woman worker of Monopoly bureau, and Motorboat of Han river. This novel described clearly the shadow of the age such as the disorientation of modern Chosun and Chosun people, Japanese imperialism's probability of subversion, and the critical consciousness of the transplanted modernity permeated in the pale faces.

Key words: Pale Faces, KAPF, Modern Girl, Modern Boy, subversion, Cafe, Monopoly Bureau